



희망천사 이평초등학교 은하계부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평초등학교 은하계부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전달 되었던 모금함인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는 추운 겨울 나를 더 춥게 만들어'를 작성한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입니다.

기부댓글을 확인하던 중 이평초등학교 은하부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의 값진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득한 사랑에 감동한 저희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은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 드리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통해 저희 복지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고 희망찬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여러분의 큰 사랑에 감동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드립니다.  
대상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겨울나기 반찬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뒷장에 계속-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져,  
추후에 사랑의 인연이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심어주신 606개의 콩이 여러분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더운 날에는 그늘이 되고 추운 날엔 땀감이 되어  
어르신들을 지켜줄 것 입니다.

김정곤, 이주영, 이혜진, 장재준,  
전인혜, 조세리, 최민준님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장 이 상 업 拜上



직원一同 김현지 · 최수용 · 김한솔 · 조영현 · 서하영 · 김준수 · 조현정 ·  
최연희 · 신동주 · 원은경 · 박종애 · 박정수드림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